행복한 에너지기술!
사람을 향한 기술 **한국전력기술**

모든 것은 하나의 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하나의 점은, 우리의 의지이자 신념이고 인류를 향한 사명이었습니다.
그 점이 모여 선을 만들고, 선들이 모여 면을 그리고, 면을 채운 인고의 시간이 모여 우리만의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지금까지의 도전이 늘 새로운 미래를 열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더 큰 내일을 그려가겠습니다.
행복한 에너지기술을 향한 도전. 사람을 향한 기술, 한국전력기술

사람, 환경, 기술 그리고 사람 Engineering for Human 한국전력기술

KEPCO E&C Family 201909

회사는 홍보전시관 및 역사관 개관으로 에너지 기술회사로서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문화공간 조성으로 임직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주민들과의
더욱 활발한 소통을 기대하고 있다

-ISSUE 중에서-

newpower, newstandard

2019년 9월호

KEPCO E&C Family

Energy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힘.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KEPCO E&C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04 Focus | 웨스팅하우스와 MOU 체결 외

&And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우리가 만들어가는 KEPCO E&C Family에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0 ISSUE | 홍보전시관 및 역사관 개관

Communication
더 현명하게, 더 여유롭게
더 건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과 소통합니다.

20 新성장지도 | 옛길 걷기
26 Storytelling | 1639년 여름, 그칠 줄을 모르고 내리는 비
28 기자칼럼 | 아내가 채식을 선언했다. 가정 불화가 왔다
30 건강 100세 | 한국인의 고질병 '화병' 더 이상 참지 마세요
32 생활과 과학 | 장내 미생물로 혈액형을 바꿀 수 있다?
34 Culture | Festival, Exhibition, Book, Movie
36 KEPCO E&C NEWS | 2019년 정보 보안활동 우수부서 포상 외
40 한기氏의 청렴윤리 | 만화로 보는 윤리행동강령
42 Inside Outside | 동호회 동정 외
44 인포메이션 | 모바일 간편결제 소비자 만족도, '등록 및 인증 편리성' 높고 '개인정보 보안' 낮아
46 Poem | 나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다
47 에코포토 | 풀이 죽다

통권 452호 · **발행인** 이배수
발행일 2019년 9월 10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율곡동)
전 화 054-421-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이 메 일 sky03tree@kepco-enc.com
인 쇄 화성에스지아이(054-773-7050)

웨스팅하우스와 MOU 체결

- 원전 디지털화 및 원전 해체 등 미래 성장 분야 상호 협력

회사는 7월 16일 웨스팅하우스와 MOU를 체결하였다.

협약식에는 이배수 사장과 웨스팅하우스 Jose Gutierrez 사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원자력발전 분야의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 유지와 새로운 협력분야의 발굴을 포함한 적극적인 상호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양사는 협약에 따라 ▶기술과 고객중심 상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상호 합의에 따른 기술 개발 ▶가동 원전의 설비 개선 ▶한미를 포함한 타 국가에서의 호혜적 사업개발 기회 발굴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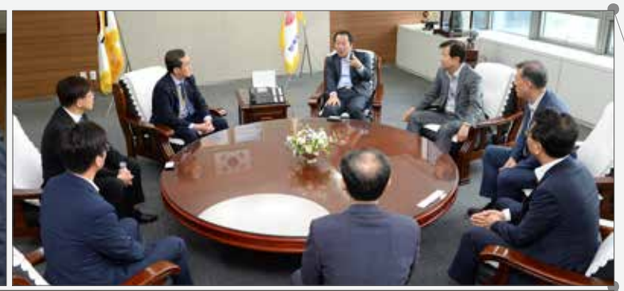
또한 서명식과 함께 Preventative Maintenance Platform, 원전 디지털화, 원전 해체 분야에 대한 기술 토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양사는 이번에 체결된 MOU를 바탕으로 양사의 미래 성장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한전KPS와 노후발전소 성능개선 사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

회사는 7월 4일 한전KPS(주)와 '노후발전소 성능개선 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배수 사장과 한전KPS 김범년 사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 회사는 국내외 노후 화력발전소 성능개선 사업의 경쟁력 확보와 기술협력을 위해 본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는 ▶국내 발전플랜트 신뢰성 및 성능평가 사업 ▶해외 발전플랜트 성능개선/수명연장/Re-Powering 사업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설계 전문 기술 역량과 발전설비 정비 및 진단기술 역량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국내외 노후 화력발전소 성능개선 사업의 동반진출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과 핵심사업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신고리 5,6호기 한기 현장사무소 입주식 행사

신고리 5,6호기 한기 현장사무소 입주식 행사가 7월 8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진태은 원자력본부장과 한상길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약 50명이 참석하였으며, 경과보고, 기념사, 내빈 축사, 현판식, 사무실 시찰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에 입주한 현장사무소는 현장사무소 최초로 우리 회사 전용 사무실로 신축되었으며, 새울 제2건설소 내 지상 1층, 연면적 533m^2 (161.5 평) 규모의 경량철골조 구조물로 설계 4.5개월, 시공 2.5개월, 인허가 1개월 등 총 8개월이 소요되어 지난 6월 20일에 준공되었다.

회사는 이번 신축 사무소 입주로 현장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취약한 보안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며, 본격화된 신고리 5,6호기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 업무를 적기에 밀착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진태은 원자력본부장은 행사 다음 날인 7월 9일, 지난 6월 21일 준공된 가동 원전 고리 RET 현장 임시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장 파견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불편사항을 점검하였다. 임시사무실인 만큼 다소 불편하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고리 통합지원센터 입주 시까지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안전과 보안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미래 엔지니어 육성 PES 여름캠프 실시

우리 회사의 전력·에너지 분야 미래 엔지니어 육성 프로그램인 파워 엔지니어링 스쿨(Power Engineering School : PES) 여름캠프가 2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번 제16기 PES 여름캠프 1차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주요 19개 대학 이공계 2~3학년 대학생 62명, 2차는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대구·경북지역 14개 대학 2~3학년 대학생 32명이 참가했다.

교육은 4박 5일의 합숙교육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진로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자력·화력·신재생 분야 등 엔지니어링 기초 교육, 조별 과제, 발전소 현장 견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진행하였다.

특히 참가자들은 월성원자력발전소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실제로 발전소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경험했다.

아울러 캠프 수료 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회사는 엔지니어링 인재 양성을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기간에 전국 주요 대학 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PES 캠프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어 현재까지 800여 명의 대학생이 수료하였다.

회사는 대학생 대상 PES 캠프를 비롯한 지역 대학 창업동아리 지원, 청년 CEO 육성 사업 등 체계적인 생애 주기 창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인재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And

앞집에 '콩이'라는 이름을 가진 치와와 한 마리가 살고 있다.
주인 부부가 직장을 나가는 탓에 콩이는 낮 동안 혼자 지낸다.
인기척이 날 때마다 안에서 요란스레 짖어 댄다.
가끔은 그 소리가 거슬릴 때도 있지만 내가 싫어한다고
안 키우지 않을 것이고, 많이 짖더라는 말은 더더욱 못한다.
콩이의 성대가 온전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콩이와의 대면은 지금까지 딱 한 번뿐이다.
동그란 두 눈과 쫑긋한 두 귀, 처음 보는데도 반갑다고 꼬리까지 쳤다.
그러나 콩이는 아직도 내 발자국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생각 없이 여닫는 현관문 소리에 항의하듯 왈왈왈 짖어 댄다.
놀랐다는 뜻인지 구출해 달라는 신호인지.
요즘은 콩이 때문에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아예 발뒤꿈치를 들고 걷는다.
현관문도 소리 나지 않게 손잡이를 끝까지 붙들고 조심스레 여닫는다.
콩이가 상전이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삼복중에 은행 안의 현금 인출기 앞에
털북숭이 강아지를 어께에 둘러메고 줄을 선 젊은 여자가 있었다.
접은 양산은 옆구리에 낀 채 한손은 강아지를 붙잡고
한손으로 일을 보자니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뒤에 서 있던 할아버지가 빨리 하라는 신호인 듯 헛기침을 한다.

그때 또 다른 여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강아지를 보고 호들갑스럽게 인사를 한다.
'안녕, 너 몇 살이니' 강아지가 대답 할 리 만무하다.
'네 살 이예요' 주인이 힐끗 돌아보며 대답을 한다.
할아버지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혼잣말을 하고 나간다.
'상전이 따로 없구먼...'

내가 좋아한다고 남들도 다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내가 싫어한다고 남들도 다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착각이다.

홍보전시관 및 역사관 개관

우리 회사 홍보전시관 및 역사관 개관 기념 행사가 8월 8일 본사 1층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배수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하여 홍보전시관 및 역사관 구축 추진 경과보고, 사장님 인사 말씀, 개관 축하 행사에 이어 전시관 관람 순으로 진행되었다.

1층에 구축된 홍보전시관은 전시면적 297㎡(약89평) 규모로 '도전·열정·소통으로 시간과 기술, 사람을 잇다'라는 주제로 다면영상, 홍보영상, 발전소 디오라마, 미디어월 등 다양한 연출 매체를 활용해 우리 회사의 역사와 기술력,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을 담았다.

또한 28층 역사관은 회사 연혁 및 사료, 역대 CEO, 수상 실적 등을 전시하였으며, 향후 임직원 및 동우회를 통해 소장 사료를 추가 수집하여 보완·운영될 것이다. 회사는 이번 홍보전시관 및 역사관 개관으로 에너지 기술회사로서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문화공간 조성으로 임직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주민들과의 더욱 활발한 소통을 기대하고 있다.

입구 메인 라이팅

Extend Time | 시간을 잇다

기본 방향

역사성
지난 43년간의 도전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에너지 기술 자립을 성공**시킨 기업

도전
Challenge

창조
Create

정체성
인간·환경·기술의 융화로
인류 행복을 향한
에너지 기술을 창조하는 기업

미래성
세계의 중심에서
도전·혁신과 창조·화합을
통해 **에너지산업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

핵심
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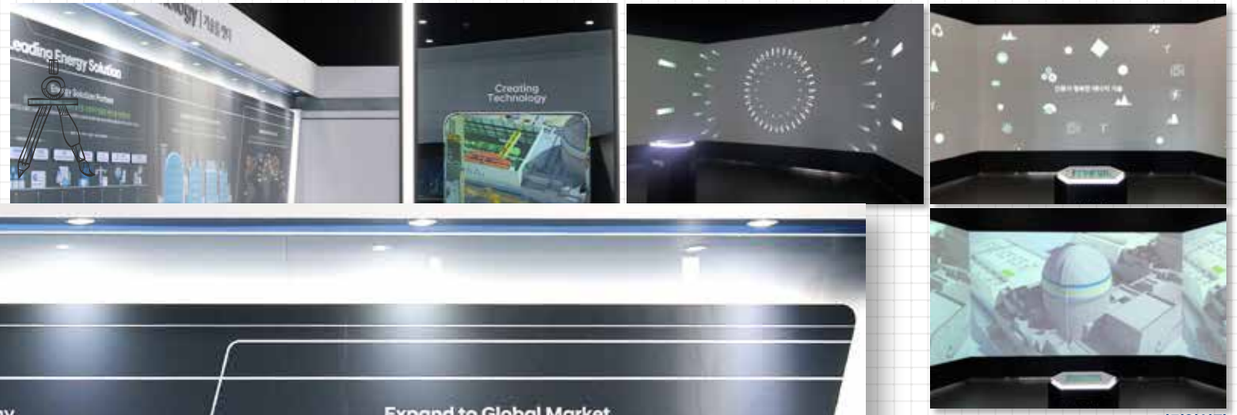
소통
Communicate

사회성
지역사회와 인류의 **공동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는
김천 혁신도시의 중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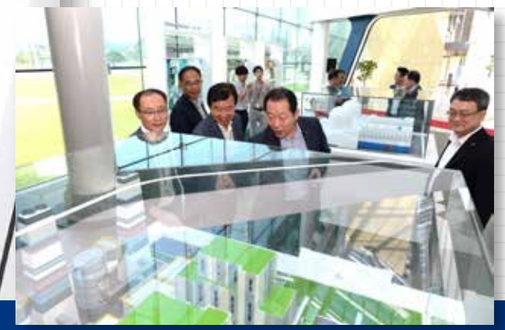
한국전력기술 40년사 그래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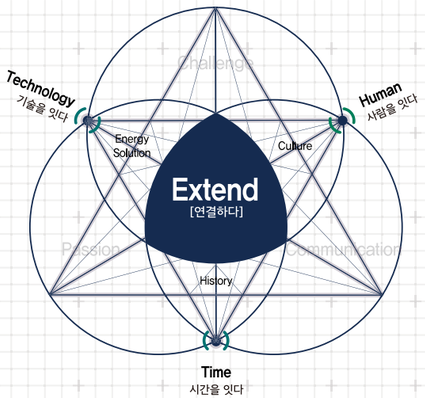
절개모형(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스마트그리드)

Extend Technology | 기술을 잇다



다면영상관





Extend Human | 사람을 잇다

절개모형(스마트그리드)

상생 공간

절개모형(화력발전소, 스마트그리드)

한국전력기술의 **도전·열정·소통**의 정신이 모여
기술과 사람 그리고 **문화**를 연결하다

EXTEND

: (CAD 영향어)연결되지 않은 객체를 다른 객체와 경계로 연장시키는 명령어

Memorial Hall | 역사관

Communication

거실 방충망에 불청객이 날아들었다.
크기로 보아 왕사마귀인 것 같다.
물론 날개가 있고 다리도 있지만
어떻게 19층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지
스파이더맨처럼 초능력을 발휘해 벽을 탄 것인지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거미가 줄을 쳐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침에 도착한 사마귀는 자세 한 번 바꾸지 않고
방충망에 붙어서 죽은 듯이 한나절을 보냈다.
저녁때가 되자 난데없이 메뚜기 한 마리가
천적의 코앞으로 뛰어 들었다.
사마귀가 유인한 것일까.
운명이라고 하기엔 가혹하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시공이 너무도 절묘하다.

가로등이 켜지고 밖은 이미 어둠이 내렸다.
방충망에는 두 마리의 곤충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대치중이다.
한 발 잘못 내디디면 천길 낭떠러지,
포식자는 한 뼘 정도의 거리에서
먹이를 향해 아주 미세하게 다가간다.
메뚜기는 겁에 질렸는지 미동도 없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호기심 천국이 되어 그들을 지켜본다.
사마귀는 거리가 사정권 안으로 좁혀지자
긴 앞다리로 재빠르게 포획을 감행한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이미 적의 손아귀,
메뚜기는 산 채로 사마귀의 밥이 되고
관찰자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는다.

옛길 걷기

오 래 된 길 안에는
화석처럼 시간이 담겨 있다.

수백 년 된 아름드리 당산나무, 장승이나 성황당, 조산 같은 유형의 흔적들은 물론 무수한 발품들이 흘려놓은 이야기들이 길 곳곳에 스며 있다. 이러한 유형무형의 흔적들은 옛길을 거닐며 만나게 되는 소소한 즐거움이다. 길들은 옛사람과 요즘 사람의 시간을 이어주고 있다. 옛길들은 대체로 강을 따라가거나 고갯마루를 넘는다. 강 길은 도로가 뚫리고 개발이 되어 대부분 정취를 잃었지만, 예로부터 이름 높았던 고갯마루 길들은 아직 그 정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길 안에서 또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옛길을 거닐며 시간 속으로의 여행을 떠나 본다.

02

05

06

영남대로의 관문, 문경새재

문경 땅에는 예로부터 경상도 일대의 사람들이 서울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고개가 네 개 있다. 신라와 고려 때에는 계립령이라 불렸던 하늘재가 있었고, 조선시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애용되던 죽령길과 새재길, 추풍령길이 있었다. 특히 과거를 보러 떠나던 사람들이 대부분 문경새재 길을 넘었는데 그 사연이 재밌다. 추풍령을 넘으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영주 쪽 죽령을 넘으면 대나무를 밟아 미끄러지듯 떨어진다고 해서 기어이 새재를 넘었다고 한다. 또 새재를 넘으면 남한강 뱃길을 이용할 수 있었으니 문경새재는 한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문경새재를 넘는 길에는 모두 세 개의 관문이 있다. 도립공원 주차장을 지나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제1관문인 주흘관인데 영남 제1관문이라 쓰여진 현판에서 이 길의 무게감을 감지할 수 있다. 주흘관을 지나 제2관문인 조곡관에 이르는 길은 부드러운 마사토가 깔려 있어 맨발로 걷기에 좋다. 숲이 깊고 그윽하며 주막이나 교귀정, 조령원터 등 요소요소에 옛길의 정취를 느껴볼 수 있는 공간들이 자리하고 있다. 교귀정은 조선시대 임금으로부터 명을 받은 신,구 경상감사가 업무를 인수인계하던 곳이며, 조령원터는 출장길의 관리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던 공익시설이다. 이러한 역과 원이 3곳 있었는데 조령원, 신혜원, 동화원이다. 한편 길과 나란히 이어지는 용추계곡은 옛날 이 길을 걷던 선비들의 땀방울을 씻어주던 공간이다. 사람이 오가는 길가의 계곡치곤 물도 맑고 경치도 빼어나다. 그래서일까? 물가의 바위 곳곳에는 이 길을 넘던 김시습이나 퇴계 같은 명사들의 싯구들이 적혀 있다. 조곡관을 지나 조령관에 오르면 눈앞을 막아서는 우람한 바위산이 우뚝 솟아 있다. 부봉(916.2m) 이다. 주흘산의 바위 능선도 아름답기로는 둘째가기가 어려울 것인데 부봉의 자태는 우악스럽지 않고 그렇다고 만만해 보이지도 않는 곡선미가 유려하다. 조령관을 넘어서면 충북 괴산 땅이다. 문경새재, 영남대로의 또 다른 시작이자 끝이 이곳이다. 제3관문 너머 사람들의 말소리가 이곳 사람들의 말소리와 확연히 구별되어 신기하다. 지역과 지역을 가르는 새재가 얼마나 높고 넘기 힘든 고개였는지 알고도 남음이다. 제1관문부터 제3관문까지는 6.5km로 왕복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03

04

01 죽령 고갯마루에 서면 영주 땅의 풍광이 아득히 펼쳐진다 02 문경새재 3관문 조령관. 충청북도 단양과 경상북도 영주를 이어주는 경계이다 03 분주히 사람들이 넘나들던 관문은 이제 호젓한 공간이 되었다 04 주막터 툇마루에 앉아 있으면 돌담 너머로 옛사람들의 인기척이 느껴질 듯하다 05 깊은 산중 숲 사이로 겨우 난 작고 좁은 길 06 교귀정. 조선시대에 임금으로부터 명을 받은 신,구 경상감사가 업무를 인수인계하던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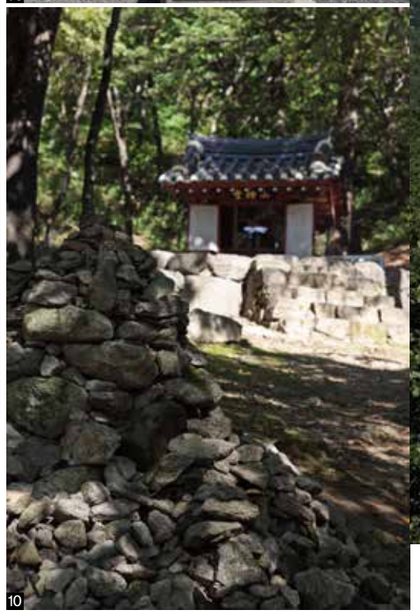
소백산 자락의 1800년 묵은 옛길, 죽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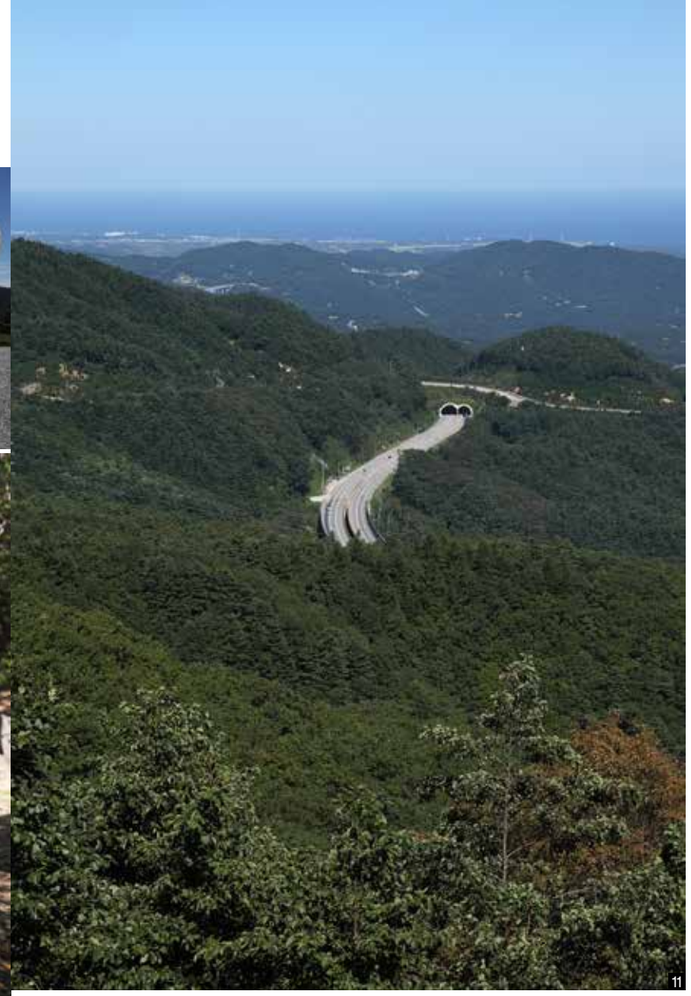
경상북도 풍기읍과 충청북도 단양읍을 이어주는 죽령(689m)은 소백산의 능선자락에 얹혀져 있다. 소백은 '격암 남사고'가 사람을 살리는 산이라 하여 넙죽 절을 올리고 갔다는 산이다. 속리산을 지나온 백두대간이 태백을 향해 나아가다가 가쁜 숨을 잠시 내쉬는 곳이 장엄한 소백의 능선이다. 소백산 제2연화봉과 도솔봉 사이의 잘록한 곳이 바로 죽령고갯길이다. 처음 죽령길이 열린 것은 무려 18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아달라왕 5년(158년) 3월에 비로소 죽령길이 열리다'라는 기록이 있고, 동국여지승람에도 '아달라왕 5년에 죽죽(竹竹)이라는 사람이 죽령길을 개척하고 지쳐서 순사(殉死)했고, 고개마루에는 죽죽을 제사하는 사당이 있다'고 적고 있다. 죽죽의 이름을 따서 고갯마루의 이름이 죽령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삼국시대의 죽령은 영토분쟁의 치열한 격전장이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 영양왕 1년(590년) 온달장군이 왕께 자청하여 군사를 이끌고 나가면서 "죽령 이북의 잃은 땅을 회복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다. 당시 죽령이 얼마나 중요한 요충지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선시대에는 청운의 뜻을 품은 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기 위해 이 길에 올랐고 공무를 띤 관원, 온갖 물산을 유통하는 장사꾼들도 사시사철 죽령 고갯길을 이용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령 고갯길을 이용했던 만큼 길 주변

07

08

09


10


11

12

13

에는 길손들의 숙식을 위한 객점과 마방들이 늘어 있었다는데, 지금은 그 흔적들이 거의 사라지고 없다. 죽령 고갯마루 끝에 자리한 휴게소와 죽령주막, 그리고 전망대가 사라진 옛 흔적들의 아쉬움을 달래준다. 죽령 고갯마루는 충청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이 서로 손 흔들고 헤어져 제갈길을 가는 곳이다. 고갯마루에는 두기의 장승이 서있는데, 소백대장군은 경북에서, 소백여장군은 충북에서 올라와 죽령길의 장승부부가 되었단다. 예로부터 죽령길은 '오르막 30리, 내리막 30리'라고 했다. 산길로 60리나 되니 잰걸음으로 걸어도 거의 하루가 꼬박 걸린다. 고갯마루를 다 넘자면 풍기 땅 희방사 역에서 죽령고개를 지나 단양 땅 죽령역까지 가야하지만, 1999년 영주시에서 가꾸어놓은 죽령옛길코스는 소백산역에서 죽령 고갯마루까지 2.5km의 구간이다.

아흔아홉구비, 대굴대굴 굴러넘던 대관령

오래 전부터 대관령(832m)은 강원도 영동과 영서를 잇는 가장 대표적인 고갯길이다. 영동이나 영서, 관동 같은 말들이 모두 대관령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본래는 큰 문이 되는 고개라 하여 대관령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고개가 하도 험해서 오르내릴 때 '대굴대굴 크게 구르는 고개' 라 하여 '대굴령'이라 불렀고, 이 음이 변하여 대관령이 되었다는 재미있는 설도 있다. 또, 강릉사람들에게는 "강릉에서 나서 평생 대관령을 한번도 넘지 않고 죽으면 그보다 더 복된 삶은 없다." 라는 말도 있었다. 그만큼 넘기 힘든 험준한 고갯마루였다는 이야기이다. 먼 세월이 지난 이즈음 대관령을 넘는 길은 세 개가 되었다. 발품 팔아가며 구십구곡을 돌아넘던 대관령 옛길과 여름휴가철이면 차량들이 길게 꼬리를 물고 늘어섰던 구 도로, 그리고 터널을 뚫어 씽씽 내달리는 고속도로다. 고속도로가 뚫린 이후로 옛길과 옛도로는 더욱 한산해졌다. 대관령 옛길은 어흘리의 대관령박물관부터 시작된다. 이 자리는 원래 제민원이 있던 자리로 제민원은 길손들에게 숙박 등 편의를 제공했던 공간이다. 원래 대관령 옛길은 겨우 한 두 명이 지나다닐 정도의 좁은 길이었다. 조선 중종 때 고형산이라는 사람이 지금처럼 널찍하게 길을 닦았다고 한다. 그래도 이 길을 넘기가 만만치 않았나 보다.

산적이 자주 출몰하여 모여서 함께 길을 넘어야했고, 강릉으로 부임하던 원님은 고갯길을 넘으며 신세한탄을 하며 눈물을 훔쳤다는 이야기도 전해 온다. 원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원맥이재를 지나 한참을 오르면 반정에 이른다. 횡계와 구산리의 중간지점이라는 뜻의 지명인데, 이곳에서 구 도로와 만나게 된다. 반정 전망대에 오르면 동해바다와 함께 강릉의 시원한 전망이 펼쳐진다. 전망대 앞에는 신사임당 사친시비가 우뚝 서있다. 신사임당이 대관령을 넘으며 어머니와의 이별이 슬퍼하며 지었다는 칠언절구의 싯귀다. 반정을 지나 다시 길을 오르면 대관령 옛길이 끝나는 지점에 국사성황당이 있다. 이곳은 신라의 고승 범일국사를 모신 당집으로 오래 전부터 강릉의 수호신 역할을 맡아 왔다.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강릉단오제가 이 당집으로부터 시작된다. 대관령박물관에서 국사성황당에 이르는 대관령 옛길은 7.8km로 3시간 가량이 소요된다. E&C

07 영남대로에서 가장 좁고 위태롭던 토끼비리길. 오래도록 수많은 사람이 지났던 길바닥이 반질반질하다
08 풍기와 단양을 이어주던 죽령옛길
09 대관령 옛길 중간에 자리한 반정과 대관령 표지석 **10** 강릉을 지켜주던 수호신, 범일국사를 모신 국사성황당 **11** 산 아래를 관통하는 영동고속도로 대관령길 **12** 울창한 숲 사이로 옛길들은 이어진다 **13** 대관령 옛길의 시작점이자 끝점인 대관령 박물관. 원래 제민원이 있던 자리다

1639년 여름, 그칠 줄을 모르고 내리는 비

1639년 여름에는 비가 유독 많이 왔다. 7월 8일부터 매일 큰 비가 내렸는데, 그 때문에 예안을 지나는 낙동강도 물이 많이 불어났다. 7월 10일에는 김광계가 연못의 연꽃이 빗물을 머금고 피어난 것을 바라보던 중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폭우가 지나간 뒤, 김광계는 말을 타고 강변으로 가서 물이 불어난 것을 구경하였다. 과연 연못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다음 날에는 서당으로 가던 중 비를 만났다. 비에 옷이 모두 젖어서 그랬는지 자는 내내 몸이 불편하였다. 아마 감기에 걸린 것 같다. 병은 7월 13일이 되어서야 조금 차도가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니 강물이 크게 불어나 있었다. 식사를 한 뒤 지팡이를 짚고 불어난 강물을 바라보며 산보하다가 한참동안 돌 위에 앉아 있었다. 강물의 기세가 넓고 아득하였으며, 파도가 세차게 일렁였는데 이를 보고 있자니 한유(韓愈)의 시가 절로 떠올라 홀로 읊조렸다. "장맛물이 홀연 들을 집어삼키니 황폐한 평원이 아득히 펼쳐지네[瀇瀁忽飜野 平蕪渺開溟]" 풍취를 입 안에서 즐기고 있자니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7월 17일에는 강물이 또 불어났는데, 다음날 나가보니 며칠 전 앉아서 강물을 바라보던 돌도 이미 잠겨 있었고, 그 위의 절벽도 조금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아직도 쏟아 부을 빗물이 남아 있었던지, 비는 그칠 줄을 모르고 계속 내렸다.

일기분류 : 생활일기
출 전 : 매원일기(梅園日記)
시 기 : 1639년 7월 8일 ~ 7월 18일
인 물 : 김광계
주 제 : 재해
장 소 : 경상북도 안동시

◆ 조선시대 홍수의 피해

농업경제기반의 조선시대는 비의 많고 적음이 농작물의 생산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비에 대한 기록은 매우 많고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이는 비의 종류에 따라 미우(微雨), 세우(細雨), 소우(小雨), 하우(下雨), 쇄우(灑雨), 취우(驟雨), 대우(大雨), 폭우(暴雨) 등 8가지로 상세하게 분류하고 있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홍수를 발생시키는 호우는 대우(大雨)와 폭우(暴雨)이며 그 외에도 대수(大水), 홍수, 물난리 등의 표현이 있다.

조선시대는 홍수의 재해가 '극심' 또는 '약'의 양극단의 특성으로 나타났다. 재해의 빈도는 중기-후기-전기의 순으로 나타났고, 재해의 규모는 전기-중기-후기로 갈수록 강해지는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홍수 재해는 50년을 주기로 증감하는 경향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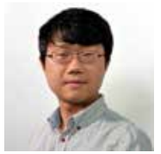
조선 전기에는 호우발생 빈도는 높았지만 재해로 이어진 홍수의 빈도는 낮았고 대부분 '약'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전기 말인 1501~1550년대부터는 재해의 빈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조선 중기에는 재해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역시 '약'에 해당하는 재해가 대부분이지만 '중' 이상의 규모가 증가했다. 조선 후기에는 중기보다는 약간 낮은 빈도로 발생했지만 대부분 '극심'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시기적 분포 특성으로는 홍수재해의 규모와 빈도가 연대별로는 1651~1700년대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601~1650년대와 1701~1750년대가 높게 나타났다. 월별로는 5~8월에 재해가 발생했고 7월에 가장 광범위한 지역에서 분포했다. 조선 전기와 중기에는 주로 6,7월에 집중해서 분포하고 조선 후기에는 7,8월에 발생빈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공간적 분포 특성으로는 홍수재해의 규모와 빈도가 조선 전기에는 한성과 경기도의 양주목, 양근군, 광주목, 가평현, 고양군 등의 내륙지역에서 주로 발생했다. 조선 중기에는 경상도의 안동부, 군위현, 인동부, 영산현, 밀양부, 양산현, 사천현 등과 전라도 순천부, 광양현, 구례현, 용담현, 진안현 등, 충청도의 임천군, 충원현, 청풍군, 단양군, 영춘현 등의 내륙/해안지역에 분포했다. 조선 후기에는 평안도의 평양부 ,안주목 등, 함경도의 이원현, 명천부 등의 북부지역에서 빈도가 증가했지만 중기와 마찬가지로 경상도와 충청도, 전라도의 내륙/해안지역에서의 분포가 가장 많았다. E&C

– 출처 : 한국국학진흥원 –

아내가 채식을 선언했다
가정 불화가 왔다



정 지 용 기자

아내가 채식을 선언했다. 소, 돼지, 닭, 양고기를 일체 먹지 않겠다고 한다.
육식주의자인 내게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다. 부부사이에 불화가 생겼다.
외식 때는 메뉴 문제로 티격태격이다. 야식 치맥이나 주말 삼겹살도 그림의 떡이다.
하지만 나는 배운 사람이 아닌가. 무조건 반대보다 논리정연한 설득을 시도했다. "육류를 먹지 않으면 철분이 부족해 빈혈에 걸릴 수 있다. 무엇보다 주기적으로 고기를 씹지 않으면 정신건강에 해롭다." 너무 논리적이었는지, 통하지 않았다. 다음은 화난 척을 해봤다. "내가 고기반찬 없이 숟가락 들지 않는 거 알지 않나. 앞으로 당신과 외식도 하지 않겠다." 너무 감정적이었는지, 야단만 맞았다. 다음은 체념 단계였다. "할 테면 해봐라. 얼마나 가나 두고 보자."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아내의 채식은 육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남자는 역시 여자를 모른다. 그런데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고기 없는 음식이 그렇게 적은 줄도 처음 알았다. 김밥 한 줄에도 가공육인 소시지가, 샐러드 한 접시에도 잘게 썬 베이컨이 들어간다. 회사 회식은 매번 고기집이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아내는 흰밥에 콩나물 반찬만 깨작거린다고 한다.

채식주의자에 대한 주변 시선도 녹록하지 않다. "고기 안 먹고 힘이 나겠나"는 걱정부터, "식물은 생명이 아니나"는 철학적 질문까지. "굳이 유난 떨거 있나"는 핀잔과 빈정거림도.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의 삶은 괴롭다. 그럼에도 불편한 소수자를 자처하는 이유는 뭘까. 채식주의자들은 말한다. 공장식 축산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좁은 사육장에 갇혀 적정 몸무게가 될 때까지 곡물, 톱밥, 찌꺼기, 오물을 먹다가 끝내 도살되는 동물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매년 인간이 소비하는 소, 돼지, 닭, 양도 800억 마리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육식주의자인 나는 항변한다. 고기 먹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다고.

채식에 대한 생각이 변한 건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에서다. 여름휴가를 다녀온 얼마 전, 배탈과 고열로 고생해 병원에 가니 급성장염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말했다 "육류를 줄이고 당분간 채식을 하세요". 나는 저항했다. "선생님, 고기는 줄일 수 없습니다. 빈혈과 스트레스의 원인입니다." 의사는 우수했다. "만성 장염은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식단을 채식 위주로 바꿨다. 효과는 금방 나타났다. 고기를 덜 먹으니 화장실 출입 횟수가 줄었다. 몸무게는 3㎏이 빠졌다. 피부톤이 밝아진 건 덤이다. 비로소 깨달았다. 이효리가 채식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의사들은 말한다. 고기를 줄이면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 각종 성인병과 만성질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채식은 현대인의 몸건강과 정신건강을 위해 권할만한 식습관이라고. 이런 실험도 있다. 2012년 대구시교육청이 대구 영진고 학생 34명을 대상으로 103일 동안 '현미 채식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효과는 놀라웠다. 학생 25명의 체중이 줄었고, 23명의 콜레스테롤이 감소했다. 여드름이 심하던 5명, 아토피 2명, 소화불량 2명이 건강을 되찾았다. 연합학력평가를 비교한 결과 참여한 학생 54%의 석차가 올랐다.

채식주의의 효능을 경험한 후 나는 채식주의자가 됐다. 다만 고기를 완전히 끊은 '비건(vegan)'은 아니다. 채식주의자도 다양한 모습이 있다. 소와 돼지를 포함해 모든 육류를 먹지 않는 비건부터, 생선은 먹는 '페스코(pesco)', 닭고기는 허용하는 '폴로(pollo)'까지. 생활습관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할 수도 있다. 내 경우 채식을 지향하지만 경우에 따라 육식을 하는 플렉시테리언(flexitarian)이다. "남이 사주는 건 마다하지 않겠다. 다만 내 돈 주고는 먹지 않겠다"는 게 나의 원칙이다.
건강상의 이유이건, 자연에 대한 생각 때문이건 우리 사회 채식주의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채식인구는 100만명~150만명으로 집계됐다. 2008년 15만명의 10배에 달한다. 관련 산업도 성장세다. 각종 스타트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채식 시장에 진출하는 추세다. 사회적 인식도 바뀌는 분위기다. 현대차는 최근 사내 식당에 채식주의 직원을 위한 점심 메뉴를 선보였다.

그래서 아내와 나는 어떻게 되었나. 야식으로 즐기던 치맥은 '떡맥(떡볶이+맥주)'으로 바꿨다. 채소 위주의 피자나, 회도 선호하는 안주다. 주말에는 삼겹살 대신, 서울 근교의 순두부집을 찾는다. 이번 주말에는 핫하다는 서울 성수동 수제 햄버거집을 방문할 예정이다. 채식주의용 매뉴가 있다고 한다.

물론 혼자일 때, 누군가 고기를 사줄 때면 흔쾌히 승낙한다. 그럴 때는 이런 말을 덧붙인다. "평소 채식주의인데 귀하께서 사 주시니 특별히 고기를 허 하겠습니다. 제 아내에겐 비밀입니다." 상대방도 즐거워하고, 나도 포식하니 서로 윈윈이다. E&C

한국인의 고질병 '화병'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유교적 전통이 잔존하는 한국사회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미덕 중 하나로 여겨진다. 반면 쉽게 화를 내거나 얼굴에 감정이 잘 나타나는 사람은 진중하지 못하고 경박스럽다는 평가를 받기 일쑤다. 이런 사회 분위기 탓에 한국인은 화병(火病)에 유독 취약하다.

화병을 제 때 치료하지 않으면 다른 연관질환에 걸리기 쉽다. 화병을 장기간 방치하면 고혈압·중풍 같은 심혈관 질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과 질환의 발생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불면증, 두통, 소화기계장애도 화병에 의해 자주 발생하는 증상이다. 최근 사회 분위기가 각박해지면서 화병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배우자의 외도, 시댁과 갈등, 채무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직장상사의 횡포, 나보다 좋은 조건으로 결혼한 친구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 등 화병의 이유도 각양각색이다. 울화병, 한국민속증후군, 분노증후군 등으로 불리는 화병은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걱정되고 두렵고 하는 등의 감정이 제대로 표출되지 않고 정체돼 발생한다. 주로 가슴 위쪽이 답답하고 손으로 눌러보면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또 목에 무엇인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고, 심해지면 두통과 함께 눈이 충혈된다.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에 등재된 정식질환으로 억울한 감정이 누적되고 해소되지 않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화병으로 진단한다. 한방에서는 화병을 '분노와 많은 걱정거리가 오래 쌓여 인체의 기를 막고

이로 인해 가슴에 열이 뭉친 병'이라는 의미로 '심화(心火)'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화(火)는 서양의학의 스트레스와 대응되는 한의학적 개념이다. 오행 중 불의 성질을 가져 위로 올라가려는 속성을 나타내고, 심장과 연관돼 온몸의 진액을 손상시킨다.

보통 화병은 4단계를 거쳐 발생한다. 충격기엔 큰 충격과 분노로 살의까지 느끼다가, 이성을 회복하는 갈등기에 접어들면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에 빠지게 된다. 다음 단계인 체념기엔 해결법을 찾지 않고 자신의 운명이자 불행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때 우울증이 많이 발생한다. 마지막 증세기엔 그 동안 쌓여왔던 화가 소화장애·두통·어지럼증·답답함·불안·짜증·신경질 등으로 표출된다.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학생, 직장인, 40~50대 주부 등이 화병에 쉽게 노출된다. 개인 성격도 중요한데 평소 예민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고위험군이다. 다만 성격보다는 경제적 어려움, 가정불화, 엄격한 상하 위계질서 같은 환경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갈등해소에 앞서 자신의 지친 몸을 달래고 심신안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방에선 침, 약침, 부항, 한약 등으로 화병을 다스린다. 침은 팔·다리·머리·가슴중앙 등에 시술해 가슴에 뭉친 기운을 풀어주고, 전신의 기혈을 순환시켜 준다. 약침은 사향, 웅담, 우황 등 성분을 가슴과 어깨 목에 주입해 화를 풀어주고 기혈 순환을 촉진한다. 향부자, 오약, 연자육, 용안육, 황금, 백복신 등으로 제조한 한약을 병용하면 지속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열을 내리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데 도움 된다. 기체조나 스트레칭을 동반한 유산소운동도 기혈순환에 효과적이다. 정신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인지치료와 상담을 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화가 났을 때 바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일정 공간에서 접시 깨기, 물건 집어던지기, 망치로 부수기 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업체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화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공격적인 반응이 학습되고 고착화될 여지가 크다. 평소 복식호흡, 명상 등으로 몸을 이완시켜 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좋다. '나는 참 대단해, 고생이 많구나'는 식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도 화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된다. E&C

장내 미생물로 혈액형을 바꿀 수 있다?

최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화학과 스티븐 위더스 교수 연수팀이 효소를 이용하여 A형 혈액의 항원 단백질을 제거해 A형 혈액을 모두에게 수혈할 수 있는 O형 혈액으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수혈용 혈액 부족 문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누구에게나 수혈할 수 있는 O형 혈액

수혈 기준인 ABO식 혈액형은 적혈구 표면에 붙어있는 당사슬인 '항원'이라는 물질 구조의 차이에 따라 A형, B형, O형, AB형으로 구분한다. A형 적혈구에는 'N-아세틸 갈락토사민'이, B형 적혈구에는 '갈락토스'가 있다. AB형은 둘을 모두 갖는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른 혈액형의 혈액이 섞이면 면역체계가 이를 알아차리고 혈액에 공격을 가하게 된다. 바로 '항원항체결합반응' 때문이다. 항원항체결합반응은 항원과 항체 사이에 발생하는 특이 반응 및 현상을 뜻한다.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사진 1. 과학자들은 누구에게나 수혈이 가능한 O형 혈액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연구해 왔다. (출처: shutterstock)

한편 O형 혈액은 누구에게 수혈해도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O형 적혈구에는 항원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과학자들은 언제나 수혈이 가능한 O형 혈액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A형 혈액에서 A형 항원을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 대해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적혈구에서 항원을 제거하는 효소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효율이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4가지 혈액 중 A형 혈액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은 A형 혈액이 수혈용 혈액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만약 누구에게나 수혈 가능한 만능혈액(universal blood)이 개발된다면 사고 희생자의 혈액형을 따질 겨를이 없는 응급실과 같은 곳에서 유용하게 쓰일 터였다.

장내 미생물 이용해 A형 항원 제거

이에 위더스 연구진은 A형 혈액을 O형 혈액으로 만들기 위해 인간의 장내 미생물에 주목했다. 일부 장내 미생물이 소화기관 벽에 붙어있는 '뮤신'을 분해해 섭취하는 현상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뮤신은 인체에서 분비되는 점액에 끈기를 부여하는 당-단백질 복합체로, 적혈구의 형을 규정하는 항원과 비슷하다.

연구팀은 인간의 대변샘플에서 장내 미생물을 수집하여 DNA를 분리했다. 대변 속의 DNA에는 뮤신을 소화하는 장내 미생물의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다. 연구팀은 이렇게 수집한 DNA를 잘게 썰어서 대장균(E. Coli)에 삽입한 뒤, 어떤 대장균이 A형 항원을 제거하는 효소를 생성하는지 관찰했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A형 항원을 제거하는 두 종류의 효소를 찾아냈다. 연구진은 두 가지의 효소를 동시에 테스트했고 그 결과 소량으로도 항원을 제거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러한 효소를 만든 주인공은 '플라보니프락토르 플라우티이(Flavonifractor plautii)'라는 장내 미생물이다. A형 항원의 당사슬을 끊어 O형으로 만드는 데에는 '알파-N-아세틸 갈락토사미니데이스' 효소가 쓰였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미생물학' 10일자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소량의 혈액을 O형으로 바꾸는 실험까지 현재 완료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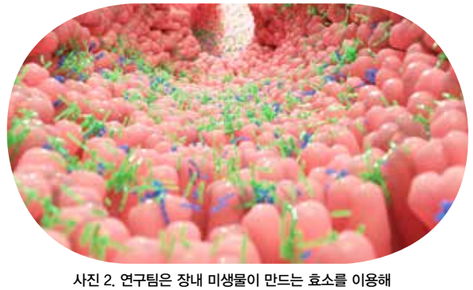


사진 2. 연구팀은 장내 미생물이 만드는 효소를 이용해 A형 항원을 제거했다. (출처: shutterstock)

혈액 부족 사태 완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

전 세계적으로 헌혈이 가능한 인구는 갈수록 줄어든다. 한국 역시 현재 3천900만 명 정도에서 헌혈 가능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어 2050년이 되면 약 2천900만 명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만 16~19세 헌혈자는 2013년에 약 105만 명에서 2017년에 약 91만 명으로 지난 4년 동안 14만여 명이 줄었다. 누구에게나 수혈할 수 있어 흔히 쓰이는 O형의 경우는 그중 가장 부족한 혈액이다.

위더스 연구팀은 2007년 이미 A형에서 O형으로 혈액형을 바꾸는 효소를 찾아냈으나 이를 다량으로 투입해야 하는 등 경제적이지 못해서 지난 4년간 추가적인 연구를 거쳤다. 위더스 교수는 "이번 연구는 혈액의 공급량을 늘려 혈액 부족 사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A형 항원이 모두 제거되는지 확인하려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C

– 출처 : KISTI의 과학향기 –

Culture

Festival

문경 오미자축제 2019

기 간 : 9월 20일 ~ 9월 22일 장 소 : 문경시 동로면 금천둔치

조선시대 각종 기록에 의하면 문경이 우리나라의 오미자 주산지이며, 문경지방의 지역 특산물로 수록되어 있다. 문경오미자는 백두대간 산자락에서 자생하는 토종자원인 오미자를 옮겨와 해발고 300m 이상의 청정환경과 일교차가 큰 산간지에서 친환경 재배기술로 생산함으로써, 맛과 향기 그리고 품질과 성분 등에서 단연 타지역산과 차별화되는 전국 최고의 명품 오미자로 각광받고 있다. 붉은 빛 넘실대는 문경 오미자축제에서 건강에 유익한 오미자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담아가길 바란다.

http://mg5mij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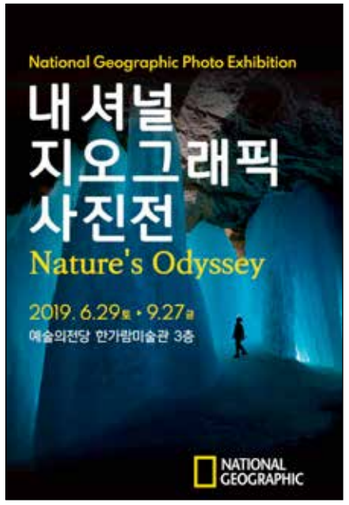
Exhibition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전 Nature's Odyssey

기 간 : ~ 9월 27일 장 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지구를 기록, 발견하고 탐험해 온 세계 최고의 종합 미디어 내셔널지오그래픽이 '네이처스 오디세이(Nature's Odyssey)'를 주제로 한 사진전을 9월 27일까지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현대 천문학을 대표하는 저명한 과학자인 칼 세이건의 저서 '창백한 푸른 점(The Pale Blue Dot)'에서 영감을 받아 인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인 지구를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환경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기획되었다. 전시회의 관람은 전시의 주제를 알리는 'Intro' 존(Zone)에서부터 '위대한 대장정', '눈길이 머물다', '우리의 이웃들', '지구의 메시지'까지 총 5개 존(Zone)으로 구성되어 지구와 인류,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살아 있는 이야기를 전한다.

http://www.sac.or.kr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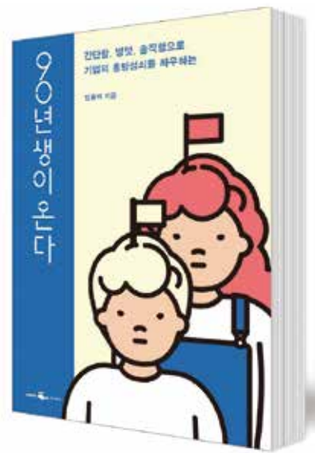
90년생이 온다 : 간단함, 병맛, 솔직함으로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얘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공무원을 갈망하고, 호구가 되기를 거부하는 낯선 존재들의 세계에서 함께 사는 법

1990년대생의 꿈이 9급 공무원이 된지 오래다. 최종 합격률이 2퍼센트가 채 되지 않는 공무원 시험에 수십만 명이 지원한다. 이들은 '9급 공무원 세대'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 시험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세대적 특징이다. 90년대생은 이제 조직에서는 신입 사원이, 시장에서는 트렌드를 이끄는 주요 소비자가 되어 우리 곁에 있다. 문제는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그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책에 담긴 여러 통계와 사례, 인터뷰에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담겨 있다. 많은 90년대생은 알아듣기 힘든 줄임말을 남발하고, 어설프고 맥락도 없는 이야기에 열광하며, 회사와 제품에는 솔직함을 요구하고, 조직의 구성원으로서든 소비자로서든 호구가 되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자신에게 '꼰대질'을 하는 기성세대나 자신을 '호갱'으로 대하는 기업을 외면한다. 이 책은 몰려오는 그들과 공존하기 위해 이해하기 어려워도 받아들여야 할 것들을 담았다. 이를 통해 각 산업의 마케터는 새로운 고객을 이해하기 위한 툴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기업의 담당자는 본격적으로 기업에 입사하는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인사 관리 가이드와 그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임홍택 저 | 웨일북



Movie

애드 아스트라 AD ASTRA

아버지를 영웅이라 믿었다!

미 육군 소령 '로이 맥브라이드'(브래드 피트)는
우주의 지적생명체를 찾기 위한 '리마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실종된 아버지를 영웅이라 믿으며 우주 비행사의 꿈을 키웠다.
어느 날, '로이'는 이상 현상으로 우주 안테나에서 지구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고 인류를 위협할 전류 급증 현상인 이 '서지' 사태가
자신의 아버지가 벌인 위험한 실험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믿고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린다!
아버지가 살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함께 그를 막아야 한다는
임무를 맡게 된 '로이'는 우주로 향하게 되는데…

개봉예정

KEPCO E&C News

2019년 정보 보안활동 우수부서 포상

회사는 8월 5일 '2019년 정보 보안활동 우수부서'에 대한 단체 포상을 시상했다.

이번 포상은 2018년 하반기에서 2019년 상반기 동안의 정기 내부보안감사 결과와 전 직원 보안교육 참여율 등 각 부서 정보 보안활동 수준을 평가하여 2019년 정보 보안활동 우수부서를 선정하였다.

최우수 부서는 안전해석그룹이 우수부서는 기술전략실이 선정되었으며, 부상으로 상금 60만 원과 30만 원이 각각 전달되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자발적인 정보 보안인식 제고 강화 활동을 통해 보안사고 Zero 달성에 노력할 방침이다.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향상기구' 선정

– 2019년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전년도 대비 실적이 탁월하게 개선 –

회사는 6월 18일 발표된 감사원 '2019년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에서 감사활동 및 실적이 전년 대비 탁월하게 개선된 '자체감사활동 향상기구'에 선정되었다.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의 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매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18년도 실적)에는 중앙행정기관 37개, 자치단체 33개, 공기업 30개 등 총 137개 기관을 7개 군으로 분류하여 실지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대상 기관 자체감사기구 중 심사 결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11개 자체감사기구와 전년도 대비 심사 결과가 크게 향상된 7개 자체감사기구가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심사에서 감사실은 감사인 근무경력 등 감사 인프라 구축, 일상감사 활동 강화 및 모범사례 발굴 등 자체 감사 성과에서 그 노력을 인정 받아 '자체감사활동 향상기구'에 선정되었다. 한편, 회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8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 최우수기관,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감사원 실지심사에서도 향상기구에 선정되는 등 감사분야에서 잇따라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

타운홀 미팅 개최

회사는 7월 10일 경영관리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였다.

타운홀 미팅은 열린소통·현안공감·미래지향이라는 슬로건 아래 엄호섭 경영관리본부장과 직원 간 열린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회사 주요 현안 및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회사의 미래와 사업전망, 인사운영, 인재개발에 대한 각 부서장 발표에 이어,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기탄없는 질의응답의 장이 마련되었다. 특히 참석자들의 활발한 의사 표명을 위하여 질의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익명시스템으로 이루어졌으며, 공감이 많은 질의에 대하여 본부장의 직접 답변과 관련 부서장의 보충 답변이 이어졌다. 회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여 회사 주요 현안에 대해 활발히 공유하고 수평적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19년 상반기 발전그룹 CTO 정례회의 개최

2019년 상반기 발전그룹 CTO 정례회의가 발전그룹 5사 CTO와 변화운 에너지신사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삼성동 한국발전공기업 협력본부에서 열렸다.

이번 정례 회의는 참여사 간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는 각 참여사 별로 발전소 안전시스템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전소 소방안전설비 개선방안(한전기술)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 조치 현황(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안전관리 현황(중부발전) △태안사고 이후 현장 안전강화실적(서부발전) △외부 참여 안전협의체 구성/운영현황(남부발전) △컨베이어 접근 통제시스템 소개(동서발전) 등의 순으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발전소 안전 문제와 개선방안, 안전관리시스템 강화방안 등에 대하여 참여사 간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유대관계 강화와 상생 협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주식회사 무진기연과 양해각서 체결

회사는 7월 11일 우수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주식회사 무진기연과 TCWS ITER 열교환기 및 탱크 납품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진태은 원자력본부장과 주식회사 무진기연 조성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사는 ITER 국제기구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코드기반 제작 경험, 품질보증 관련 자격 등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충족하는 우수 중소업체를 평가하였으며, 선정된 무진기연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ITER 사업은 핵융합에너지 실용화를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인도, 유럽연합 등 7개국이 참여하여 진행되고 있는 초대형 국제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로, 우리 회사는 CIS(중앙 연동 제어장치), CESS(케이블 엔지니어링 지원), CMA(건설사업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ITER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의 성공적 완수와 핵융합로 건설기술 확보, 추가적인 ITER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한 노력을 배가할 예정이다.

KEPCO E&C News

● 제154회 원자력 안전점검의 날 행사 개최

회사는 제154회(2019년도 2분기) 원자력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원자력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품질·안전 향상 방안 및 주요 현안 공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김신환 원자로설계개발단장을 비롯한 임직원 약 9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정윤형 박사를 초청하여 △원자력안전문화(공정문화)를 주제로 특강이 진행되었다. 강연에서 정윤형 박사는 "안전문화란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것(Do the right things right)"이라고 말하며 "과거의 경험이 쌓이면 경계심이 무뎌지기 때문에 항상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신환 원자로설계개발단장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안전문화 증진 및 정착을 위한 한기 구성원 모두의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관리자 및 경영진의 책임과 노력이 중요하다"며 안전 최우선의 리더십을 당부했다.

회사는 분기마다 원자력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증진과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김천 이전 공공기관 창업지원 협력체계 구축 협약

회사는 7월 11일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과 이전 공공 기관 간 창업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는 혁신성장실 오인승 실장을 비롯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3개 기관은 김천지역에 이전한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및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 지역창업 지원사업에 공동참여 및 상호협력하게 된다.

업무협약은 △창업지원에 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및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각 기관이 보유한 창업 관련 정보,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긴밀히 공유 및 제공 △지역 창업 활성을 위한 협업사업 적극 참여 △지역 창업지원 사업의 공동 발굴 및 추진 등에 대한 상호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개 기관은 정부 과제 공동참여 및 기관 간 업무제휴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교환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 내부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우수 공인내부감사사(CIA) 양성

– 감사실 이준철 차장, '2018 윌리엄스미스 명예 공인내부감사사상' 수상 –

회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8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 최우수기관,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내부감사역량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 회사 감사실에 근무하는 이준철 차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내부감사인협회(IIA: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에서 수여하는 '2018 윌리엄스미스 명예 공인내부감사사(CIA:Certified Internal Auditor)상'을 수상하였다. CIA는 세계 유일의 국제공인 내부감사 전문 자격증으로, 내부감사인의 전문역량을 검증하는 지표로 인정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170여 개국 약 16만 명, 우리나라는 약 1,000여 명이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2018년도에 감사실 이준철 차장과 권장주 차장 2명의 CIA를 동시에 배출하였다.

● 핵심 역량강화 엔지니어링 교육 실시

원자로설계개발단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엔지니어링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한국과학기술원과 우리 회사의 상호 협력 협약 중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교육기간은 6월 24일부터 7월 17일까지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나눠 매주 2회(2~4시간/회) 진행되었으며, 강사진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들로 구성되었다. 교육은 원자력 비전공자 및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원자로 공학 기초이론, 원자로 시스템, 원자로 발전기 수치해법 및 전산 시뮬레이션 등의 기본 교육과정과, 해체 원전의 계통 제염, 원자력발전 시스템 제어이론, 몬테칼로 방법 및 응용, 재생에너지 등의 설계그룹의 특성을 반영한 심화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원자력 기초 지식 습득과 체계적인 설계 능력 향상이 기대되며, 회사는 교육 종료 후 효용성 평가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확장할 계획이다.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회사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본사 3층 대회의실과 원자로설계개발단 설계동 강의실에서 110여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언제 어디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의료상황에 대해 효과적인 초동대처가 가능하도록 응급상황 시 기본 행동요령을 비롯한 심폐소생술(CPR), 자동 제세동기(AED) 사용요령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애니(실습용 마네킹)을 이용한 심폐소생술(CPR), 자동 제세동기(AED) 실습으로 실질적인 응급처치 능력을 배양하였고,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의 또한 뜨거웠다.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임직원의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부정을 저지른 업체와의 거래는?

| 부정행위가 발생한 업체와의 거래 |

만화로 보는 윤리행동강령

윤리경영 Key-point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1.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총괄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총괄책임자는 상담기록관리부(별지 제 6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행동강령총괄책임자는 제1항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직원 본인이 제 1항에 의해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부정행위 발생 업체와의 거래

계약해제사항은 어떻게 명시해야 할까요?

부정을 저지른 업체와 거래한다는 것 자체가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때를 대비하여 사전에 계약조항의 계약해제 사유 중에 '불법,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Inside Outside

동호회 동정

한기 축구단

한기 축구단은 청주 용정축구공원에서 열린 제27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배 축구대회에 참가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우리 회사 엄호섭 경영관리본부장이 참석해 한기 축구단 선수들을 아낌없이 응원하고 격려하였다. 특히 엄호섭 경영관리 본부장은 "한기 축구단 선배회원으로서 후배회원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이 매우 보기 좋고, 앞으로도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활기차게 운동했으면 한다"라고 말하며 격려금을 전달했다.

한기 축구단은 매년 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2010년 우승을 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우리 회사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다.

또한 김천 내 타 기관과의 친선경기를 주관하여 지역사회 내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더불어 주 1회 정기 축구활동을 통해 직원들의 체력증진 및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사우 애경사

결혼

- 원자로)안전해석그룹 이규천 처장의 자녀 : 7월 20일 더 라움
- 원자로)계측제어설계그룹 문예슬 대리 : 7월 27일 더채플앳청담
- 미래전략연구소 이길수 부장의 자녀 : 8월 18일 더채플앳청담
- 인사노무처 강민수 사원 : 8월 24일 그랜드호텔

부음

- 원자력)기계배관기술실 전창빈 부장 장모상 : 6월 22일 분당 서울대병원
- 신사업)전기계측기술실 양희용 차장 부친상 : 6월 24일 대전 건양대학교
- 원자력)기계배관기술실 김용백 처장 장인상 : 6월 24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 미래전략연구소 장영식 부장 모친상 : 6월 24일 예천 농협장례식장
- 원자력)PSA&PSR사업그룹 성경우 부장 부친상 : 6월 28일 경남 한성병원
- 원자로)유체계통설계그룹 서호택 부장 장인상 : 7월 1일 부산시민장례식장
- 원자로)안전해석그룹 박찬억 부장 장인상 : 7월 2일 아산병원
- 신사업)전기계측기술실 주규석 부장 모친상 : 7월 3일 진주전문장례식장
- 원자력)토건환경기술실 남윤호 부장 장인상 : 7월 13일 서울대장례식장
- 신사업)전기계측기술실 최병근 부장 모친상 : 7월 14일 전북 우석장례식장
- 원자로)원자로안전점검실 이민용 차장 모친상 : 7월 17일 전주 삼성장례문화원
- 원자력)전기계측기술실 우원식 부장 장모상 : 7월 18일 경남 삼천포장례식장
- 신사업)건설사업그룹 백승우 부장 장모상 : 7월 23일 아주대병원

알립니다

봉사단, 동호회 부서행사 등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으시면 홍보팀으로 연락주세요. 동우회는 퇴직직원들의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우회 동정

제76회 이사회 개최

한전기술동우회 제76차 이사회가 7월 22일 한기동우회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정관 제21조에 의거 박태은 회원을 상임이사 직무대리로 선임했다.

부음

박상기 전 사장 본인상 : 7월 5일 서울대병원
김충석 회원 본인상 : 7월 6일 중앙보훈병원
김은규 전 감사 본인상 : 7월 22일 분당 서울대병원
구승림 회원 모친상 : 7월 28일 보성장례식장
고희진 회원 장인상 : 7월 30일 서울중앙대학교병원
이대영 전 상임부회장 모친상 : 7월 30일 청주의료원

한기 44년, 역사를 찾습니다

홍보 역사관 사료 수집

한국전력기술은 2019년 8월 8일 '홍보전시관'을 개관하여 최고의 기술을 통해 세계로 도약하는 기업 이미지와 회사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기록으로 남겨 미래의 교과서로 삼고자 역사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역사적 자료와 물품이 다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역사관 구성에 활용할 사료를 수집하고자 하니 임직원 및 퇴직자 선배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수집자료** : 한국전력기술의 역사로서 희귀하거나 의의가 있는 자료 및 물품 일체(문헌자료, 수상실적 및 기념패, 시청각자료, 비품 등)
2. **수집기간** : 현재 ~ 2019년 9월 30일(월)
3.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전력기술 혁신성장실
   강우성 사원 Tel) 054.421.5233
   E-mail) ws.kang@kepco-enc.com
4. **기념품 증정** : 희소성, 역사성, 보관상태 등을 고려하여 소정의 기념품 증정

모바일 간편결제 소비자 만족도, '등록 및 인증 편리성' 높고 '개인정보 보안' 낮아

모바일 간편결제가 기존의 결제수단을 대체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선택비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입자 수 상위 6개 사업자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이용경험자 1,200명의 소비자 만족도 및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소비자 만족도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서비스 품질*, 상품 특성**, 호감도***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평가했다.

*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신속성, 소비자 요구에 대한 대응성 등 서비스 전달과정에 대한 만족도

** 결제서비스 정확성, 개인정보 보안, 등록 및 인증 편리성, 부가 혜택 등 서비스 핵심 요소에 대한 만족도

*** 소비자가 서비스를 체험하면서 느낀 주관적 감정에 대한 평가로 긍정·부정감정의 빈도

[조사개요]

- 조사대상 :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6개 사업자*) 이용경험자 1,200명(사업자별 200명)
  * 11페이(시럽페이), SSG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가나다순)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19.5.13.~5.19.)
- 분석개요 : 만족도는 부문별 가중 평균 적용(5점 리커트 척도),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30%p

'등록 및 인증 편리성' 만족도는 높고, '개인정보 보안' 만족도는 낮아

종합만족도는 소비자 만족도의 3개 부문인 서비스 품질 만족도, 상품 특성 만족도, 호감도의 중요도(가중치)를 반영한 평균값으로, 조사대상 6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종합만족도는 평균 3.89점이었다. 사업자별로는 카카오페이 3.94점, 11페이(시럽페이)와 삼성페이가 3.92점, 페이코 3.90점 등의 순이었다.

※ 2017년도와 비교 가능한 네이버페이(+0.12점), 삼성페이(+0.14점), 카카오페이(+0.18점), 페이코(+0.20점) 등 4개 사업자는 종합만족도 점수가 모두 상승함.

서비스 품질 만족도는 평균 3.93점이었고, 사업자별로는 삼성페이 4.00점, 카카오페이 3.99점, 11페이(시럽페이) 3.95점 순으로 나타났다. 상품 특성 만족도는 결제서비스 정확성, 개인정보 보안, 등록 및 인증 편리성, 부가혜택 등 4개 요인으로 평가했는데, 등록 및 인증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3.97점으로 높은 반면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53점으로 낮았다. 호감도는 평균 3.76점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카카오페이 3.83점, 11페이(시럽페이) 3.78점, 삼성페이 3.77점 순이었다.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단위 : 점/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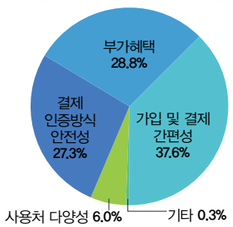
구분	종합만족도	서비스품질	상품 특성				호감도
			결제서비스 정확성	개인정보 보안	등록 및 인증 편리성	부가혜택	
카카오페이	3.94	3.99	3.94	3.51	4.02	3.59	3.83
11페이 (시럽페이)	3.92	3.95	3.92	3.54	3.95	3.73	3.78
삼성페이	3.92	4.00	3.98	3.68	4.08	3.33	3.77
페이코	3.90	3.90	3.91	3.50	3.96	3.78	3.76
네이버페이	3.88	3.92	3.93	3.42	3.96	3.67	3.74
SSG페이	3.78	3.84	3.73	3.50	3.82	3.50	3.70
평균	3.89	3.93	3.90	3.53	3.97	3.60	3.76

* 서비스 품질, 상품 특성, 호감도 3개 부문의 만족도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

간편결제 서비스 선택 시 '가입 및 결제의 간편성', '부가혜택' 등을 중요하게 고려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은 '가입 및 결제의 간편성'이 3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가혜택'이 28.8%, '결제 인증방식의 안전성'이 27.3% 등이었다. 한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시 불편했던 점으로는 '가맹점별 특정 결제 서비스 사용 제한'이 31.3%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이용 시 별도 앱 다운 필요'가 16.7%, '개인정보 과다 등록 요구'가 13.2%로 뒤를 이었다

[서비스 선택 시 고려 요인]



환불 및 결제 취소 절차에 대한 안내 강화 등 서비스 개선 필요

환불 및 결제 취소 절차에 대한 평가는 '환불 및 결제 취소로 인한 불이익 없음'이 4.11점으로 가장 높았고, '환불 및 결제 취소 절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이 3.78점으로 가장 낮아 환불 및 결제 취소 절차에 대한 안내가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사업자와 공유하여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및 서비스 분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C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나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다

Writer 김충섭 경영지원처 차장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다.
아침에 집을 나와 회사라는 일터에서 일을 하고
퇴근하면 또 천변 길을 따라 걷는 꿈.

해질 무렵 환하게 켜지는 가로등 불빛
가로등 옆 고속도로를 지나는 작은 차들은 쇄~액하고
큰 차들은 우~웅 부~웅 소리를 내며
뒤차는 앞차를 앞차는 그 앞차를 쉼 없이 쫓아가는 꿈.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다.
아파트 길모퉁이 눈 바닥을 살짝 미끄러지며
힘이 빠진 다리를 조심스레 한 발자국씩
눈에 보이는 길을 따라 생각했던 곳으로 걸어가는 꿈.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다.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 방향도 없는 꿈.

언젠가 생각도 목적도 영혼도 의지도 없는
영원한 꿈을 꾸게 되는 꿈.

나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다.

풀이 죽다

한여름 뜨거운 태양에 맞서는 생물은 없습니다
사람조차도 태양의 뜨거움을 피해 달아납니다
피할 수 없는 생물 중에 식물은 맞서기도 하지만
어떤 녀석들은 마치 죽은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죽은 듯이 있어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풀이 죽은 듯이 있는 것은 살기 위함입니다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 에너지 소비를 없애고
살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때 다시 살아납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 만이 생존 전략은 아닙니다
때로는 풀이 죽은 듯 있는 것도 생존 전략입니다
힘이 들면 풀 죽은 듯 조용히 내려놓고 삽시다

글 · 사진 | 김영규 품질안전환경처 부장